

영화처럼...마침내 '홈 승리' 쏘다 투병 유상철 감독의 '인천 드라마'



‘감독님, 힘내세요!’ 인천은 24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19’ 상주전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유상철 감독(가운데)의 최정암 투병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뒤 첫 경기이었던 이날 인천 선수들은 유 감독에게 부임 첫 홈 승리를 안기기 위해 이를 악물고 뛰었고, 결국 K리그1 잔류에도 한발 더 다가섰다. 승리 후 박남춘 인천시장 겸 구단주(오른쪽), 선수들과 함께 밝은 웃음을 짓고 있는 유 감독.

인천 | 김중원 기자 won@donga.com

마지막 홈경기서 상주 잡고 K1생존 희망
유 감독, 최정암 불구 투혼·열정으로 지휘
전 경기장서 30초간 쾌유기원 감동의 박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치해 복귀할 것”
경기장엔 ‘네버엔딩스토리’ 떼창하며 눈물



인천 유나이티드는 K리그1(1부 리그) 무대에서 매년 생존 드라마를 써왔다. K리그2(2부 리그)로 떨어질 듯 말 듯 애간장을 태우는 행보를 견다 가도 찬바람이 부는 시기엔 엄청난 저력을 발휘하며 K리그1에 살아남는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었다.

올해 ‘인천 드라마’는 유상철 감독(48)의 투병 사실이 알려지면서 애잔함을 더하고 있다. 유 감독은 19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병원 검사 결과 최정암 4기 진단을 받았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축구계 전체가 그의 쾌유를 기원하고 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23일과 24일 전국에서 열린 K리그 경기에 앞서 30초간 유 감독을 위해 박수를 치는

행사를 진행했다. 또 각 팀 감독들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승패를 떠나 유 감독의 쾌유를 비는 격려의 메시지를 잊지 않았다. 유 감독은 “정말 많은 분들이 격려해주셨다. 감동을 많이 받았다.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것은 지인, 팬들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 감독의 버킷 리스트 ‘홈 승리’ 일궈낸 인천

유 감독이 가장 이루고 싶었던 일 중 하나는 ‘홈 승리’다. 인천은 5월 14일 유 감독 부임 이후 홈에서 단 1승도 올리지 못했다. 유 감독 체제에서 일군 3승은 모두 원정에서 거뒀다. 24일 상주 상무전은 인천의 올 시즌 마지막 홈경기였다. 유 감독은 “마지막 홈경기를 찾은 팬들에게 이기는 모습을 보여 주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유 감독의 뜻대로 인천 선수들은 홈에서 이겼다. 비가 내리고 찬 바람이 부는 차가운 날씨에도 홈경기를 찾은 1만1486명의 팬들을 위해 온 힘을 짜낸 인천은 후반 30분 문창진의 선제골에 이어 후반 43분 케힌데의 추가골까지 터지면서 상주에 2-0으로 승리했다. 경기 후 유 감독은 “마지막 홈 승리로

팬들에게 선물을 안겨준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밝게 웃었다. 이 승리로 승점 33이 된 인천은 성남 FC에 승리한 경남FC(승점32)와의 격차를 유지하며 10위 자리를 지켜냈다.

●“내가 희망이 되고 싶다”

유 감독이 앓고 있는 최정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워 가장 위험한 암으로 알려져 있다. 유 감독을 비롯한 수많은 최정암 환자들은 생존의 기로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다. 그는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선수시절부터 힘든 경험을 통해 성장했고, 이 자리에 왔다. 지금도 그런 과정이라 생각한다. 그 분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서라도 보람 뜻이 완치가 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치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천은 30일 창원에서 경남과 ‘K리그1 생존’을 놓고 시즌 마지막 승부를 벌인다. 인천은 경기장에 올라 퍼진 부활의 노래 ‘네버엔딩스토리’ 제목처럼 유 감독과 함께하는 드라마가 끝나지 않는 행복한 이야기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

인천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아구·축구·농구·배구·골프 등 프로 5대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직접 뽑는 종목별 ‘최고의 선수’가 12월 11일 2019 동아스포츠대상 시상식에서 공개된다. 사진은 지난해 시상식 장면.

대한민국에서 오직 하나 명품 시상식이 열립니다

선수가 뽑은 ‘올해의 선수’ 선정
12월 11일 포시즌스호텔서울

스포츠동아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남녀), 프로배구(남녀), 프로골프(남녀) 등 국내 5대 프로스포츠별 ‘최고의 선수’를 뽑는 ‘CMC와 함께 하는 2019 동아스포츠대상’ 시상식을 12월 11일 개최합니다.

동아일보, 채널A, CMS(센트럴메디컬서비스)와 공동 주최하는 이 행사는 올해 11년째로 프로선수들이 해당 종목의 동료 중에서 ‘올해의 선수’를 뽑는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5개 종목 8개 부문 수상자에게는 1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수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종목 연맹 및 협회의 운영·홍보 담당자로 구성된 ‘동아스포츠대상 운영위원회’에서 ‘올해의 선수’ 후보와 투표인단을 확정했습니다. 종목별 30~50명씩 총 313명의 선수가 투표에 참여하며 수상자는 시상식 현장에서 발표됩니다.

유료·발행부수 1위 스포츠신문으로 2년 연속 한국ABC협회의 인증을 받은 스포츠동아가 한국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9년 12월 1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포시즌스호텔서울(광화문 사거리)
- 주최 :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채널A, CMS(센트럴메디컬서비스)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케이토, 한국야구위원회, 대한축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손흥민의 골 선물...무리뉴 감독과도 궁합 좋네 ▶ 2면



연매출 20조원
시장으로 급성장

새로운 창업패러다임 최소창업비, 최대효과에 도전

배달전문점 모집

연 20조시장을
훔치러 왔다!!



한번 먹고 나면 잊혀지지 않는 맛~

잘살아보세~프로젝트

음식장사 이제는 배달이 대세!!

최상의 상권분석과 최적의 홍보마케팅

주방만 있어도 OK!

24시간 OK!

최소자본 최대효율

기존식당 뒷골목 점포도 주방시설만 있다면 OK!!

가맹본부 성공창업문의



02-446-7805

본사가 레시피, 광고, 물류 보장 뿐 아니라, 성공창업까지 약속드립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성공스토리

- 1 월매출 5,000만원 이상의 카테고리 제공 (30%마진)
- 2 맛에 대한 자신감 있는 20년 전통의 레시피 전수
- 3 완전자동 조리시스템 구축으로 라면만 끓일 줄 알면 됩니다.



홍친갈비

검색

가맹본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621 광동빌딩 2층
공정, 충북 충주시 양성면 둔터로 509 (지리리5이번지)